

지역 소식통

완주군,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 접수 시작

완주군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협에서 받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로 품목별로 다르다.

우선 전라북도 지원품목인 견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품목인 고구마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당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완주군 지원품목인 고구마, 당근은 100%, 전라북도 지원품목인 견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는 9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들의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마늘의 경우 가격하락을 겪었으나 고산면의 한 농가는 13.5톤을 계통 출하해 2020년 1월에 1092만3700원을 차액으로 지원받기도 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고,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공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작성하고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봉면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랑의 밑반찬 전달

김제시 진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용현, 박영현)는 최근 사랑의 밑반찬을 마련하여 관내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50명에게 전달했다.

3월호 밑반찬은 장조림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려는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게 준비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안내와 안부 확인하면서 가까호호 방문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운곡지구 분양열기 뜨겁다

완주군 청사 인근 복합행정타운, 전원주택단지 입주 모집 단독주택·준주거 분양공고... 6일부터 입찰신청 가능



완주군 청사 인근을 개발하는 운곡지구(복합행정타운)가 전원주택단지 분양에 전격 돌입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중 단독주택용지 103필지(주거전용 94필지, 점포겸용 9필지), 준주거용지 10필지(일반 9필지, 금융업전용 1필지) 등 총 113필지를 분양 공고하고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와 준주거용지(일반, 금융업전용)는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만19세 이상 실수요자가 신청 가능하다.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필

지별 제시된 예정가격 이상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최고가 낙찰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입찰신청이 가능하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은 4월 13일에 발표한다. 낙찰자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계약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낙찰자는 계약기간을 분산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타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은 "현재 분양 관련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방문객의 발길도 끊기지 않고 있다"며 "운곡지구가 명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합창단이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관내 아동들에게 손수 제작한 수제마스크 500장을 전달해 달라며 김제시에 기탁했다.

“김제시에 수제마스크 기부”

지평선합창단, 관내 아동복지시설 등에 5백장 전달

(사)지평선합창단이 관내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전달해 달라며 손수 제작한 수제마스크 500장을 김제시에 기부했다.

또한 (사)지평선합창단에서는 민간 음악교류 인연으로 이탈리아 로마한인회 및 로마 한인학교, 노비리구레시 의료진(김제시 문화교류도시)에게도 각 1,200장(총 3,600장)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해외 특송으로 전달하였다.

(사)지평선합창단 이명희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작은 응원의 메아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김제시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원물품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잘 전달할 것이며 김제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감염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영유아대상 ‘복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로 되어있는 0개월~7세 대상 제공

김제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중에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등을 운영할 뿐 아니라, 복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비대면 복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지역 사회문화운동으로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복스타트 책꾸러미를 나누어주고 관련한 후속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복스타트 책꾸러미는 단계별 그림책 2권과 복스타트 가이드북, 복스타트 가방으로 구성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로 되어있는 생후 0개월부터 취학전 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책꾸러미 수령방법은 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42)로 전화하여 영유아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수령가능 여부를 확인후, 주민등록등본(2020년 발급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립도서관, 민경도서관, 금구도서관 입구에서 수령하면 된다.

최명기시립도서관장은 “사회적 육아 지원 프로그램인 복스타트를 통해 김제시민의 생애 최초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교육 실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에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신규 및 전보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 위주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책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 5개과 직원들이 보조사업과 회계업무 전반, 계약사무, 조례 제·개정안 작성 및 입법형식, 행정운영 관란에 의한 문서작성, 복무 관리 등 실무 위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자칫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주요 내용과 사례들을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함으로써 업무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또한 교육 후에는 업무 처리 시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해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긍심 고취의 시간으로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최고 혁신 완주군, 올해 혁신과제 공모 시작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혁신 지자체로 손꼽히는 완주군이 올해도 혁신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완주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연 원인이 되거나 주민과 기업 불편을 유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혁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금 지급과 근경가점을 부여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공모기간도 이번 달 1차 공모에 이어 오는 9월 2차 공모를 진행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대통령령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 선정,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선 사례는 전국의 우수사례로 손꼽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자체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시 과도한 평가요소로 소규모업체의 입찰 문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해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했으며, 소규모 건축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해 규정을 바꿨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규제개혁 사례는 직원들이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굴되고는 한다”며 “이번 혁신과제 공모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